

# 양현종 생애 첫 ‘황금장갑’ 품을까

KBO, 골든글러브 후보 85명 명단 확정...13일 발표

정규시즌·KS MVP 이어 사상 첫 동시석권 노려

KIA, 김선빈 등 1루수 제외 전 포지션 후보 올라



2017시즌의 주인공 KIA 타이거즈의 양현종이 ‘황금장갑’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4일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2017 타이어뱅크 KBO 골든글러브’ 후보 85명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경기수와 타격 성적으로 후보를 지정했던 방식에서 해당 포지션의 수비 이닝수로 변경해(지명타자의 경우 타석수) 포지션별 후보를 폭넓게 선발했다.

포수 및 야수는 해당 포지션에 720이닝(타석기수X5이닝) 이상 수비로 나선 모든 선수가 후보가 됐다. 지명타자는 지명타자 타석을 297타석(규정타석의 3분의2) 이상 채운 선수가 후보 자격을 얻었다. 투수는 규정이닝 이상이거나 10승 이상, 30세이브 이상, 30홀드 이상 중 한 가지 이상 기준에 해당할 경우 후보가 됐다.

단, KBO 정규시즌 개인 타이틀 수상자는 모든 포지션에서 자동으로 후보에 포함됐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올 시즌 골든글러브 후보는 투수 26명, 포수 6명, 1루수 5명, 2루수 8명, 3루수 6명, 유격수 5명, 외야수 22명, 지명타자 7명 등 총 85명이 됐다. 지난해 45명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먼저 투수 부문 후보는 프로야구 사상 첫 통합 MVP에 빛나는 양현종이 팀동료 팻딘, 헥터 등과 함께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또 니퍼트·유희관·장원준(이상 두산), 레일리·박세웅·손승락·송승준(이상 롯데), 김진성·맬립·해커(이상 NC), 다이아몬드·문승원·박종훈·켈리(이상 SK), 소사·진해수·차우찬(이상 LG), 브리검·최원태(이상 넥센), 로치·피어밴드(이상 kt), 한화 오강도, 삼성 윤성환까지 26명이 투수 부문 후보다.

포수 부문에서는 KIA 김민식, 두산 양의지, NC 김태균, LG 유강남, 강민호·이지영(이상 삼성) 등 6명이 후보가 됐다.

두산 오재일, 롯데 이대호, NC 스크류스, 한화 로사리오, 삼성 리프는 1루수 후보다. KIA 안치홍이 버티고 있는 2루에서는 두산 오재원, 롯데 번즈, NC 박민우, SK 김성현, 넥센 서건창, 한화 정근우, kt 박경수가 경쟁한다.

KIA 이범호는 두산 허경민, SK 최정, 넥센 김민성, 한화 송광민, 삼성 이원석과 3루수 후보에 올랐다. 유격수 자리에서는 ‘타격왕’ KIA 김선빈이 NC 손시현, LG 오지환, 넥센 김하성, 한화 하주석 등과 후보에 올라 첫 골든글러브에 도전한다.

외야 3개의 골든글러브를 놓고 버나디나·이명기·최형우(이상 KIA), 김재환·박건우(이상 두산), 김문호·민병헌·손아섭·전준우(이상 롯데), 권희동·김성욱·나성범(이상 NC), SK 노수광, 이형종·채은성(이상 LG), 고종욱·이정후(이상 넥센), 한화 양성우, 구자욱·김현곤·박해민(이상 삼성), kt 유한준 등 22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인다.

지명타자는 KIA 나지완, 두산 에반스, 롯데 최준석, SK 정의운, LG 박용택, 한화 김태균 그리고 삼성 이승엽의 싸움이다.

양현종이 생애 첫 골든글러브를 품게 되면 한 시즌에 한국시리즈 MVP, 정규시즌 MVP, 골든글러브까지 동시에 석권하는 최초의 선수가 된다. 그라운드를 떠나는 이승엽은 2015년 본인이 세운 골든글러브 최고령 수상(39세3개월20일)과 통산 최다 수상(10회) 기록에 도전한다.

한편 골든글러브 투표는 올 시즌 KBO 리그를 담당한 취재기자과 사진기자, 중계방송사 PD, 아나운서, 해설위원 등 미디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영광의 수상자는 13일 오후 5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3층)에서 열리는 시상식 현장에서 공개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독일·멕시코·스웨덴과 한 조, 내 운명”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 러 월드컵 추첨 ‘운명론’ 언급

2016년 평가전·리우 올림픽서 2승 1무 성공적 성적표

손흥민·황희찬·권창훈 등 당시 멤버 ‘러시아 기적’ 기대



“독일보다는 폴란드가 낫지 않을까 생각했다. 독일, 멕시코와 한 조에 묶이면 ‘이게 내 운명이구나’라고 생각했다.”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은 지난 2일 2018 러시아 월드컵 조 추첨 결과, 독일, 멕시코, 스웨덴이 들어있는 F조에 한국이 묶이자 ‘운명론’을 언급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사령관으로 이 팀들과 맞붙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신 감독은 이들 세 팀과 지난해 브라질에서 올림픽팀 간 대결을 펼쳤다. 스웨덴과는 올림픽 직전 평가전에서 맞붙었고, 독일, 멕시코와는 조별리그에서 격돌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이들 세 팀을 상대

로 한 신태용 감독이 받은 성적표는 2승 1무로 대성공이었다.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치른 스웨덴과의 평가전에서 현재 A대표팀 월드컵 최종 엔트리 후보인 공격수 후보인 황희찬(잘츠부르크)이 최전방에 섰고, 미드필더 권창훈(다중), 장현수(FC도쿄)도 선발 멤버로 출격했다. 한국은 문창진(강원)의 멀티골과 류승우(제주)의 득점에 힘입어 스웨덴을 3-2로 꺾었다.

올림픽 본선에서도 신태용호의 상승

세가 이어졌다. 1차전에서 최약체 피지에 8-0 대승을 낀 신태용호는 2차전에서 독일과 만나 3-3으로 비겼다. 황희찬과 손흥민(트트)의 멀티골과 류승우(제주)의 득점에 힘입어 스웨덴을 3-2로 꺾었다.

디펜딩 챔피언 멕시코와 3차전 맞대결에서는 후반 32분에 터진 권창훈의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승리했다. 한국은 2승 1무로 조 1위를 차지하며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신태용호가 독일과 멕시코를 올림픽 8강 진출의 제물로 삼은 셈이다.

올림픽팀의 주축으로 활약했던 손흥민과 황희찬, 권창훈, 장현수는 월드컵 본선을 준비하는 신태용호의 주축 멤버로 좋은 기억을 안고 러시아로 간다. 그



러나 월드컵은 차원이 다른 무대다.

‘전차군단’ 독일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에 이어 대회 2연패이자 통산 다섯 번째 우승을 노린다.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는 10전 전승으로 C조 1위를 차지했다.

북유럽의 복병 스웨덴도 유럽 예선에서 프랑스에 조 1위를 내줬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전통 강호 이탈리아를 따돌리고 러시아행 티켓을 따냈다. 한국과 역대 A매치 상대전 적에서도 2승 2무로 한 번도 지지 않았다.

멕시코 역시 북중미 예선 1위로 본선에 올랐다. 한국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멕시코에 1-3으로 패한 기억이 있다.

리우 올림픽 때 이들 조별리그 상대 팀에 기본 좋은 경험을 했던 신태용 감독과 손흥민, 황희찬, 권창훈 등이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새로운 기적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 “양키스 NO”

오타니 측, 면접 초대 안해

“샌프란시스코·시애틀 후보”

일본인 투타 겸업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23·닛폰햄 파이터스)가 파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인 MLB닷컴은 4일 오타니가 내년 시즌 뉴욕 양키스의 핀스트라이프 유니폼을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타니는 자신을 원하는 메이저리그 구단들과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오타니 측에서 양키스에 면접에 초대된 팀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전달한 것이다.

오타니와 같은 일본인 투수인 다니카 마사히로가 활약 중인 ‘메문’ 양키스는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거론됐다. 최다 우승에 최고 인기팀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영입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대를 벗어난 결과에 브라이언 캐시먼 양키스 단장은 “실망스럽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MLB닷컴은 “오타니는 서부지역의 스몰마켓 구단을 선호한다”며 “미네소타 트윈스도 오타니 영입전에서 탈락했다”고 전했다.

‘야루 스포츠’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시애틀 매리너스가 최종 후보 중 하나”라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은 각각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 서부 지구에 속해 있다. 오타니의 포스팅은 오는 23일 마감된다.

/연합뉴스

전남 유상철 감독 선임

‘월드컵 4강 주역’ 유상철(사진)이 전남 드래곤즈의 지휘봉을 잡는다.

전남 드래곤즈가 4일 유상철 울산대학교 감독을 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

앞서 지난 3년간 전남을 이끌었던 노상래 감독은 “올 시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지막 경기까지 잔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팬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둬 많은 아쉬움이 남고, 팬들에게 미안하다. 선수들을 믿고 끝까지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자진사퇴했다.

전남 신승재 사장은 “전남을 가장 잘 이끌 감독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유상철 감독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현역 시절 멀티플레이어로 명성을 높인 한국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인 만큼 각 포지션별 선수들의 스타일, 심리, 전술적 역할을 잘 활용하여 선수단을 잘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동계기간 동안 팀을 재정비하여 2018년



상위스플릿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상철 선임 감독은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

으로 내년 시즌을 위한 퍼즐을 맞춰가겠다. 믿고 맡겨주신 만큼 팬들에게 실망시키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남은 사무국 조직도 새롭게 개편했다. 선수단 전력강화 및 체계적인 지원체제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보강해 선수지원팀을 전력강화실 변경했다. 광양제철고 김인원 감독이 전력강화실장을 맡는다. 업무밀도 강화를 위해 홍보마케팅팀을 홍보마케팅실로 변경했으며, 홍보마케팅팀 정용진 차장이 홍보마케팅실장으로 보직 변경됐다.

/김여울기자 wool@

## 우즈 성공적 복귀 히어로 월드 챌린지 공동 9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2·미국)가 10개월 만에 필드 복귀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우즈는 4일 바하마 나소의 올버니 골프클럽(파72·7302야드)에서 열린 히어로 월드 챌린지(총상금 350만 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6개, 보기 2개와 더블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의 성적을 낸 우즈는 출전 선수 18명 가운데 공동 9위를 기록했다.

우즈가 대회 4라운드를 완주한 것은 지난해 이 대회 이후 1년 만이다.

그는 올해 1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오픈에 출전했으나 컷 탈락했고, 2월 초에는 유리피언투어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에서 나갔지만 1라운드 후 허리 통증으로 기권했다. 4월 수술대에 오른 우즈는 이후 치료와 재활에 전념하다가 이번 대회를 통해 10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렀다.

/연합뉴스